# 물가 잡는다지만…가계·중기 '이자 부담' 어쩌나

## 기준금리 0.5%p 인상 '빅스텝'

### 광주·전남 중기 880여곳 연평균 8000만원 더 부담해야

### 각계 "부채 부실화·경기 위축 부작용 우려…대책 마련을"

6% 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13일 정부가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 말에는 중소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조치가 종료된다.

이날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한은이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고 최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크게 올린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출 이자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65조17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96.0%(62조57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중소기업 대출 비중 85.0%(1544조원 중 1313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당장 지급할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명목이라 원리금·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41조46944억원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 잔액은 55.5%인 23조201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타격을 크게 받는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산금리도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가 0.5% 오를 때 광주·전남 중소기업 887개사는 업체당 연평균 80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른 이날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의 물가 불안과 환율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가계·기업 부채 부실화와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향후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경제 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가계와 기업의 금융 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 경제도 부진한 상황인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에 유의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등을 통한 원화 가치 안정 노력으로 금리 인상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급증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민간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많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한다"며 "금리가 지속해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빅스텝 단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준금리 상향 조정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출 초도자금과 운영자금 등 기업의 대출 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정책금융 저리 대출을 통한 수출업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로나 재확산에 고용 시장 위축

### 6월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전년보다 9700명 줄어

이른 더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꿈틀대면서 6월 광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달 전국 취업자 수는 84만명 늘었지만,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광주 75만명·전남 10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500명·1만85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전국 취업자 수는 284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1000명 증가했다.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 4월(-6200명)과 5월(-1700명)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지난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남지역도 전년보다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4월(3만1500명)과 5월(3만5400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광주 취업자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산업별로 증감이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광주는 9700명이나 줄고, 전남은 1만4100명 증가했다.

특히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전년 대비)는 8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다.

광주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1만2200명↑)이었고,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8000명, 35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1만9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8700명) 등 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전년보다 줄었다.

전남에서는 전기·운수·통신·금융(-5900명)과 건설업(-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농림어업(-1만1700명↑)과 사회간접자본·기타 서비스업(6500명), 제조업(700명) 등 취업자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6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석 달 만에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했다"며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종료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하고 내년에도 증가 폭 둔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친환경 생태도시로 오세요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분양

### 84㎡ 1057가구…행정타운 인접·교통 편리

우미건설은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서는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1·2차<투시도>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은 오룡지구 43블록과 44블록에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전용 84㎡ 총 105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차(43블록)는 전용 84㎡ 372가구로, 2차(44블록)는 전용 84㎡A·B·C·D 685세대로 구성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는 98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영산강 조망과 체육공원(예정)과 망모산 등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이밖에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위치한 행정타운과 거리가 가까운 데다, 주변 대불산단과 세라믹 일반산단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인근 남악JC를 통해 서해안과 남해고속도로를 쉽게 이용, 광주와 순천, 여수 등 주변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남창대교와 남창1교(공사중)를 통해 목포시와 남악신도시 등 시내 이동도 수월하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도보권에 자리해 있고, 롯데아울렛 남악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향후 지구 내 상업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을 제외하고는 100% 지하화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아파트 단지로 설계했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카페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한편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견본주택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2번지에 마련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삼계탕 드시고 더위 이기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가운데)와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주정화) 20명은 13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이심점심 중식지원' 행사를 열고 고령 농업인 등 400여 농가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전남 섬 주민 금융교육·금융복지 상담 협약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금감원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지역민 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금융교육은 신용 및 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거래 때 유의사항, 재무설계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진도와 신안 등 섬 지역민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합동 금융교육과 금융복지 상담을 벌인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순천 신대지구 '동부'와 남악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서부'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을 시작으로 현재 영광, 광양, 고흥, 무안, 여수, 해남, 구례, 화순, 담양, 순천, 나주 등 11곳에 지역별 순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 농협 목포유통센터, 3년간 급식센터 운영

### 목포시 어린이집연합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약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13일 목포시 옥암동 센터 회의실에서 목포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센터는 목포시 학교급식 수탁기관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협약에는 김석일 농협 목포유통센터 사장과 신명숙 목포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정현영 목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지역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목포유통센터는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 교육 지원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올해 목포시 학교급식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11일부터 3년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목포유통센터는 목포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남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판로를 넓히고 농가 소득에 증대하는 등 농협과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농협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협력 지원 외에도 상생을 통해 우리 농산물·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지난 2003년 전남권 최대 규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개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씨(SEA)~원한 섬머

### 광주은행, 카드 고객 경품 행사

광주은행이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21일까지 KJ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씨(SEA)~원한 섬머'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카드를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0% 상당(최대 5만원)을 돌려준다.

온라인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쓰면 총 2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주유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300명에게 GS주유 1만원 상품권을 주는 '고유가 시대 기름값에서 잠시나마 해방' 행사도 벌인다.

광주은행은 이 기간에 개인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성금 5000만원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한전KPS는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5000만원으로 여름철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전KPS의 '하절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달 말까지 전국 250개 가정을 선정해 오는 8~9월 전기요금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요금 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선정할 방침이다.

필요한 곳에 성금이 전달되도록 전국 60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과 협의해 지원 대상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냉방시설 운영이 불투명한 기관도 포함된다.

한전KPS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5000만원을 모금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328.61(+10.85) |
| ↑ 코스닥 | 763.18(+12.40) |
| ↓ 금리(국고채 3년) | 3.211(-0.080) |
| ↓ 환율(USD) | 1306.90(-5.20) |